

김겨울

Winter Gyeoul kim

SPACE SO

이름 없이 유명하는 기억들이 있다. 어떤 기억은 아주 가늘고, 유연한 모습으로 사회성이 다분한 기호들로 이루어진 언어의 성긴 틈새를 유려하게 지나친다. 김겨울은 이 의식의 조각을 점, 선, 면, 그리고 색에 조심스럽게 담아 추상 회화의 형식으로 드러낸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 세계를 지나온 작가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벗어난 존재가 나누는 본능의 언어를 상상한다. 섬세하게 버려진 레이어와 붓질이 서로를 교차하고, 덮어내며 만드는 강약과 움직임은 음악을 닮아 기대에 찬 호기심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희열을 안겨준다. 가시화된 감각들은 마치 시가 그러하듯이 이를 마주하는 의식에 생경한 심상을 띄우기도 한다. 규범적 상호작용의 경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김겨울의 그림은 더욱 고요한 세계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김겨울(b.1988)은 뉴욕 School of Visual Arts 순수미술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2018년 첫 번째 개인전 «Hertz»(위켄드, 서울) 이후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2022,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S, M, L, XL»(2024, 스페이스 소, 서울)까지 총 3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 (2023,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강선미와의 2인전 «사라질 수 없는 선이 남는다»(2023, 스페이스 소, 서울), «추상과 풍경»(2022,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나, 그리고 그 밖의 것들»(2020, 하이트컬렉션,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뉴욕 ISCP(2024)와 금천예술공장 14기(2023)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Some memories drift without a name. Those memories are so delicate, and flexible that they effortlessly navigate through the loose gaps in the language system composed of socially laden symbols. Winter Gyeoul Kim carefully captures these small fragments of consciousness in dots, lines, planes, and colors, revealing them in the form of abstract painting. Having traversed diverse cultural and linguistic worlds, the artist imagines a language of instinct transcending the concept of language merely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ool. The delicate layers and brushstrokes intersect and overlay each other, creating dynamics and movement reminiscent of music, bringing a sense of eager curiosity and unexpected joy. And, much like poetry, these visualized sensations can evoke whole new imagery in the minds of those who encounter them. Winter Kim's paintings, dreaming of liberation from the boundaries of normative interactions, are slowly heading toward a quieter world.

Winter Gyeoul Kim graduated with a B.F.A. in Fine Arts,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New York, USA), and received her M.F.A. in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18, she held her first solo exhibition «Herts» at Weekend, followed by «As if Singing at Your Own Pace»(2022, PS Sarubia, Seoul) and «S, M, L, XL»(2024, SPACE SO, Seoul). She has participated in several group exhibitions including «Memory Beneath the Ego, Fantasy Above The Ego»(2023,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Only Indelible Good Left»(2023, SPACE SO, Seoul), «Abstract and Landscape»(2022, Kyobo Art Space, Seoul), and «I, Etcetera»(2020, Hite Collection, Seoul). She has participated in DOOSAN Gallery International Residency - ISCP(2024, New York) and The 14th Resident Artists programme at Seoul Art Space Geumcheon(2023, Seoul).





A for A Sip of Water

2024

watercolor on paper

dimensions variable (27.9 x 35.6cm each, 12pcs)

세 개의 점

한자의 물 수(水)가 부수로 쓰일 때는 氵, 중국어로는 이를 三点水, 세 점의 물이라 부른다. 부수의 역할이 그렇듯 氵의 옆에 오는 한자에 물과 관련된 의미를 지어준다. 海, 江, 湖, 池, 湿, 波...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몸이 작아지면서도 한 글자의 의미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 나는 이것이 왜 네 개도 아닌 세 개의 점이 되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아마 그 답은 영영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사실 명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이를 계속 떠올려 보는 건 아니다. 흘러가는 물을 세 방울에 담아 글자로 만든 과정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올 봄여름에는 내리쬐는 태양 아래 높은 건물이 가득한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둔 거대한 도심 공원을 쫓 따라 자주 산책했다. 여느 때처럼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우뚝 서 있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나무들은 그 뒤로 멀리 보이는 무수한 고층 빌딩들의 높이를 무색하게 만들더니 동시에 나와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깨알 같이 작게 느껴지게 했다. 크기와 스케일이 비례하지 않았던 순간의 경험은 몸의 감각에 선명하게 남아 시간이 지나도 어제 본 것 마냥 생생하다.

<S, M, L, XL>*는 스케일을 생각하며 만든 전시이다. 어딘가 항상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그림들에게 또는 나에게 조금은 명료해 보이는 전시 제목을 쥐여주고 싶었다. 드로잉 제목은 알파벳을 전달할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알파벳에 단어를 붙여 말하는 데에서 착안했다. 예를 들어, 'Apple'과 'Air' 그리고 'Aha'는 모두 알파벳 'A'로 시작하지만 각자가 가진 의미의 스케일의 차이가 재밌게 다가왔다.

페인팅을 하면서 한편에서 종이에 파스텔 드로잉을 하고 있었고, 문득 언젠가 이 작은 크기의 드로잉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만 있었다. 캔버스가 걸리는 벽 주위에 튼 물감들과 붓 자국은 무언가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았고, 그렇게 네모난 캔버스의 바깥을 궁금하게 했다. 처음엔 네모를 살짝 벗어나는 컷아웃 드로잉을 했었는데, 네모를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무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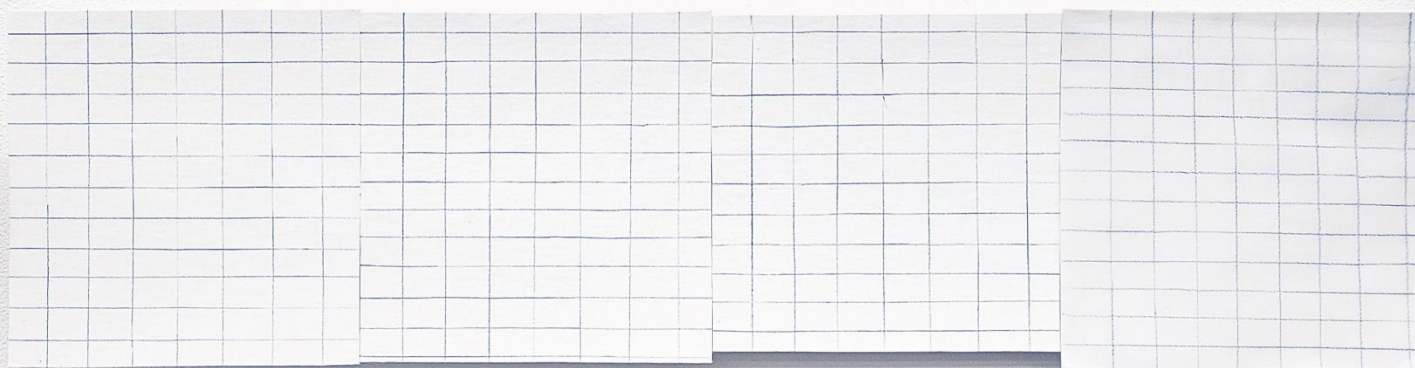
선을 그려서 만들기보다, 종이를 오리고 자르며 생겨나는 선으로 만들어낸 형태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여겼다. 점점 더 공간을 자르고 만든다는 생각이 큰 거리낌 없이 부피를 갖는 드로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드로잉이 부피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유연하고도 유약한 종이의 성질이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네다섯 종류의 종이를 사용했는데, 재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종이를 사용하기보다 상상한 질감의 성질을 종이에 담아내려 했다. 종이를 쥐고 오리고 눕히고 누르고 문지르면서도 이것이 어떤 것의 표면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와 새삼 놀랍다. 페인팅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 덕분에 드로잉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림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덕분에 울퉁불퉁하고, 접히고, 휘고, 덜렁덜렁한 부피를 가진 드로잉을 두 눈 가득 담아볼 수 있었다.

김겨울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만든 건축사무소의 20년간 쌓인 온갖 자료들을 스케일 순으로 묶은 책 제목이다. 정확한 제목은 <S,M,L,XL>이다.



O for Ocean
2024
watercolor on paper
3 x 3 x 3cm



H for Hide-and-seek

2024

colored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10 x 38.8 x 1.1cm



H for Heavy Raindrops

2024

watercolor, pastel, and charcoal on paper

31 x 19.5 x 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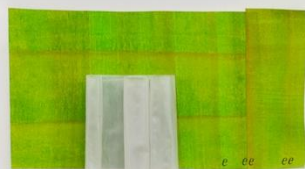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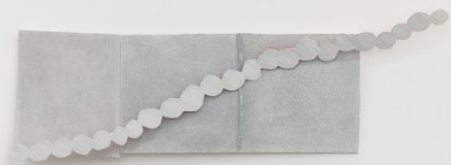
D for Days after Days
2024
pastel and lettering on paper
15.4 x 40 x 11cm



B for Baker's Morning

2024

pastel, watercolor, charcoal, pencil, and colored pencil on paper
26.5 x 32.3cm





M for Me Time

2024

watercolor, pastel, colored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28.1 x 22.7 x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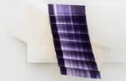


L for Libra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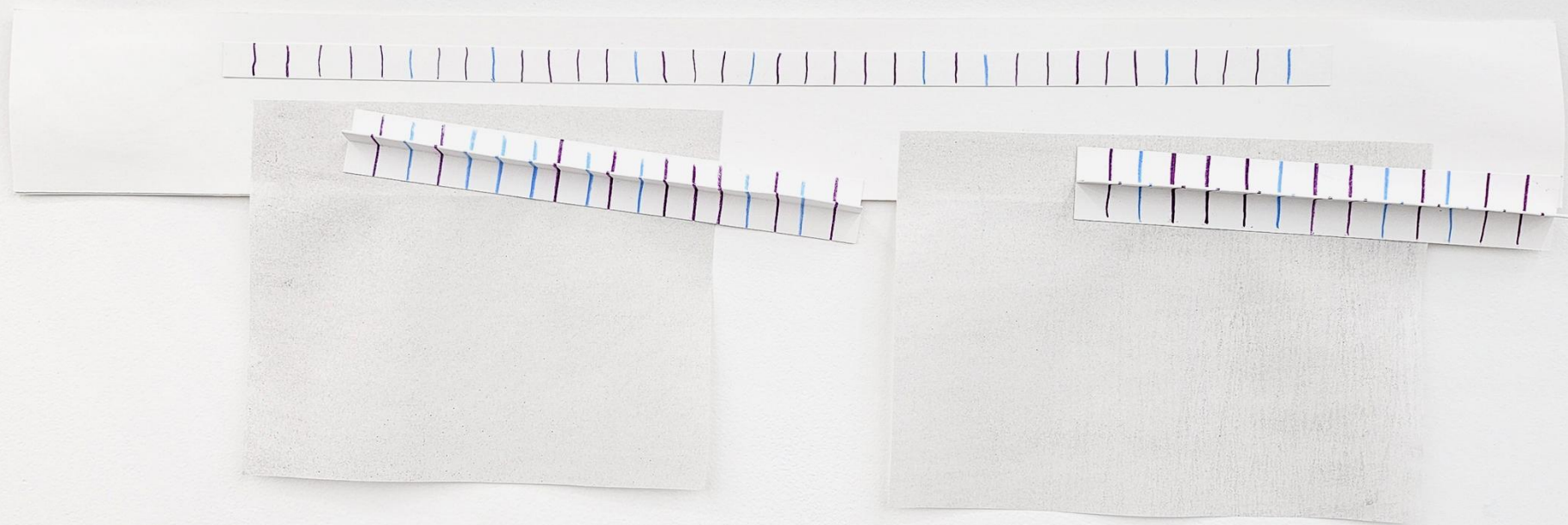
2024

pastel, colored pencil, and watercolor on paper

54.6 x 24 x 7cm







T for Twins Strolling
2024
pastel and colored pencil on paper
17.7 x 54.1 x 1.4cm

SPACE SO

S for Sun Starts to Sing

2024

pastel and lettering on paper
dimensions variable



S for Sensitive Information

2024

pastel, colored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18.4 x 54.2 x 2cm





B for Bedtime Stories

2024

watercolor, colored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25.3 x 53.8cm





G for Grammar Check

2024

pastel, colored pencil,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25.3 x 11.5 x 5.2cm





A for Address Unknown

2024

pastel, watercolor, colored pencil, charcoal,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49 x 34 x 5cm

KRW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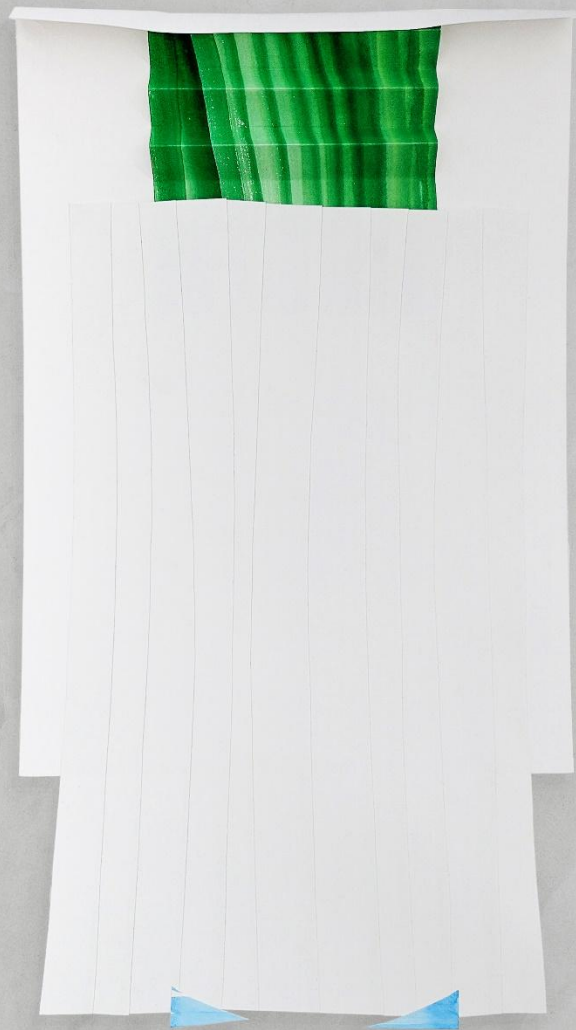


H for Happiness In the Chaos
2024
pastel and charcoal on paper
28.7 x 38.3 x 4.3cm



A for Architect
2024

pastel, colored pencil, and lettering on paper
22 x 39 x 1.3cm



S for Swing
2024
watercolor on paper
59.6 x 27 x 1.8cm





Winter Gyeoul Kim

Salad Delivery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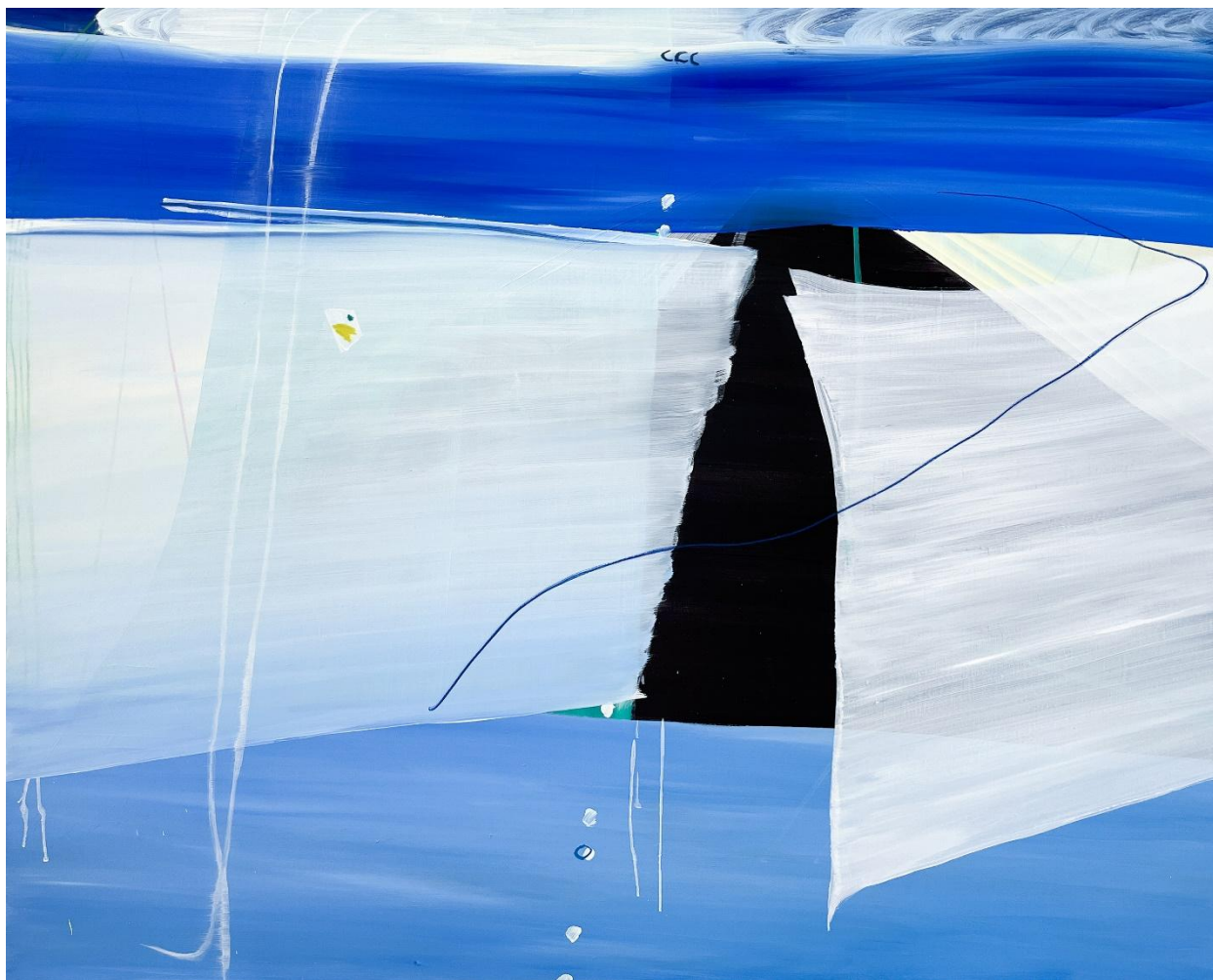
2023-2024

oil and spray paint on cotton
190 x 130cm



Winter Gyeoul Kim

Salad Delivery Service, 2023-2024
(detail)



Winter Gyeoul Kim

Marcato
 2022-2024
 oil and oil pastel on linen
 120 x 150cm



Winter Gyeoul Kim

Marcato, 2022-2024
(detail)



Winter Gyeoul Kim

Tiptoe
 2023-2024
 oil and pencil on cotton
 115 x 90cm

Winter Gyeoul Kim

Tiptoe, 2023-2024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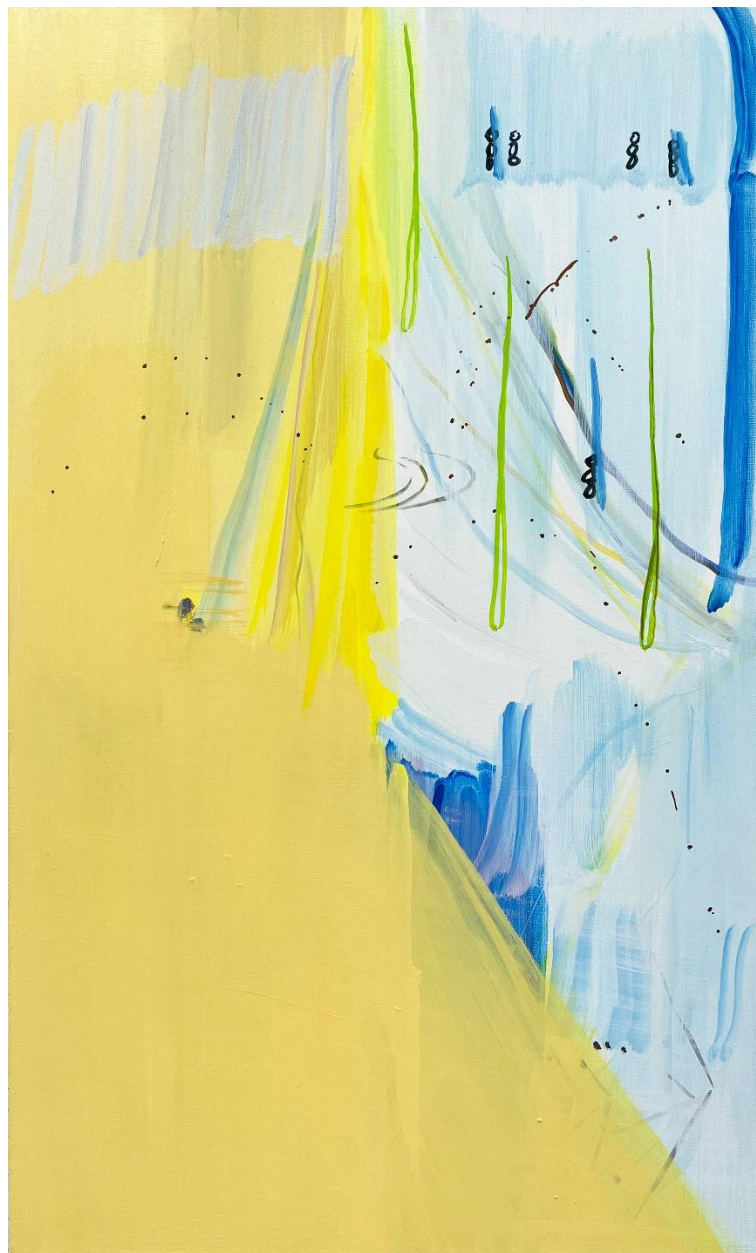
Winter Gyeoul Kim

Blues in Summer
2023-2024
oil on cotton
90 x 60cm



Winter Gyeoul Kim

Blues in Summer, 2023-2024
(detail)



Winter Gyeoul Kim

Shhh in Exerc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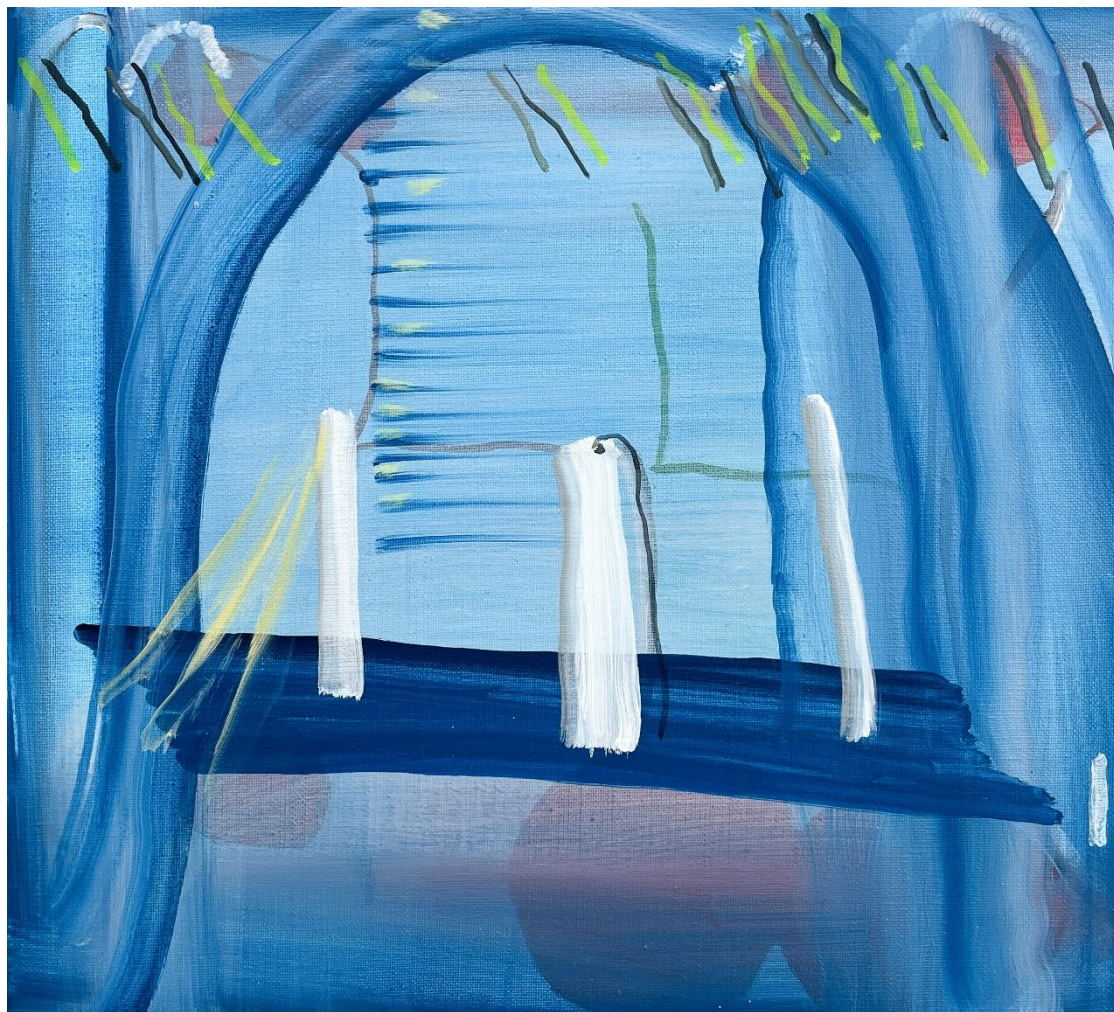
2023-2024

oil on linen

83 x 50cm



Winter Gyeoul Kim
Shhh in Exercise, 2023-2024
(detail)



Winter Gyeoul Kim

Blue poles

2024

oil on linen

36 x 40cm



Winter Gyeoul Kim

Blue poles, 2024
(detail)



Winter Gyeoul Kim

Newborns at Night
2024
oil on cotton
22 x 22cm

SPACE SO



Winter Gyeoul Kim

Newborns at Night, 2024
(detail)



Winter Gyeoul Kim

Eraser Mi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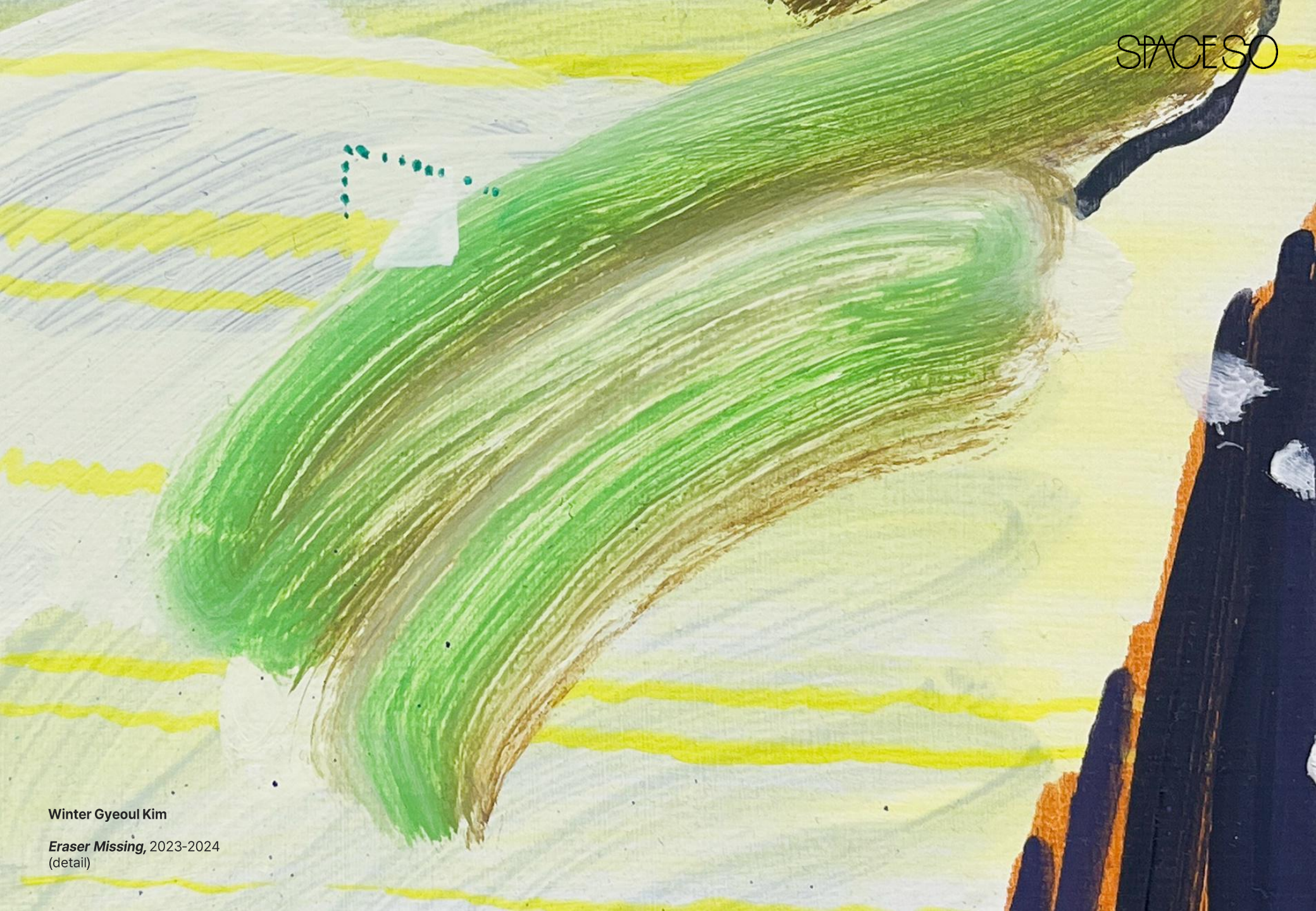
202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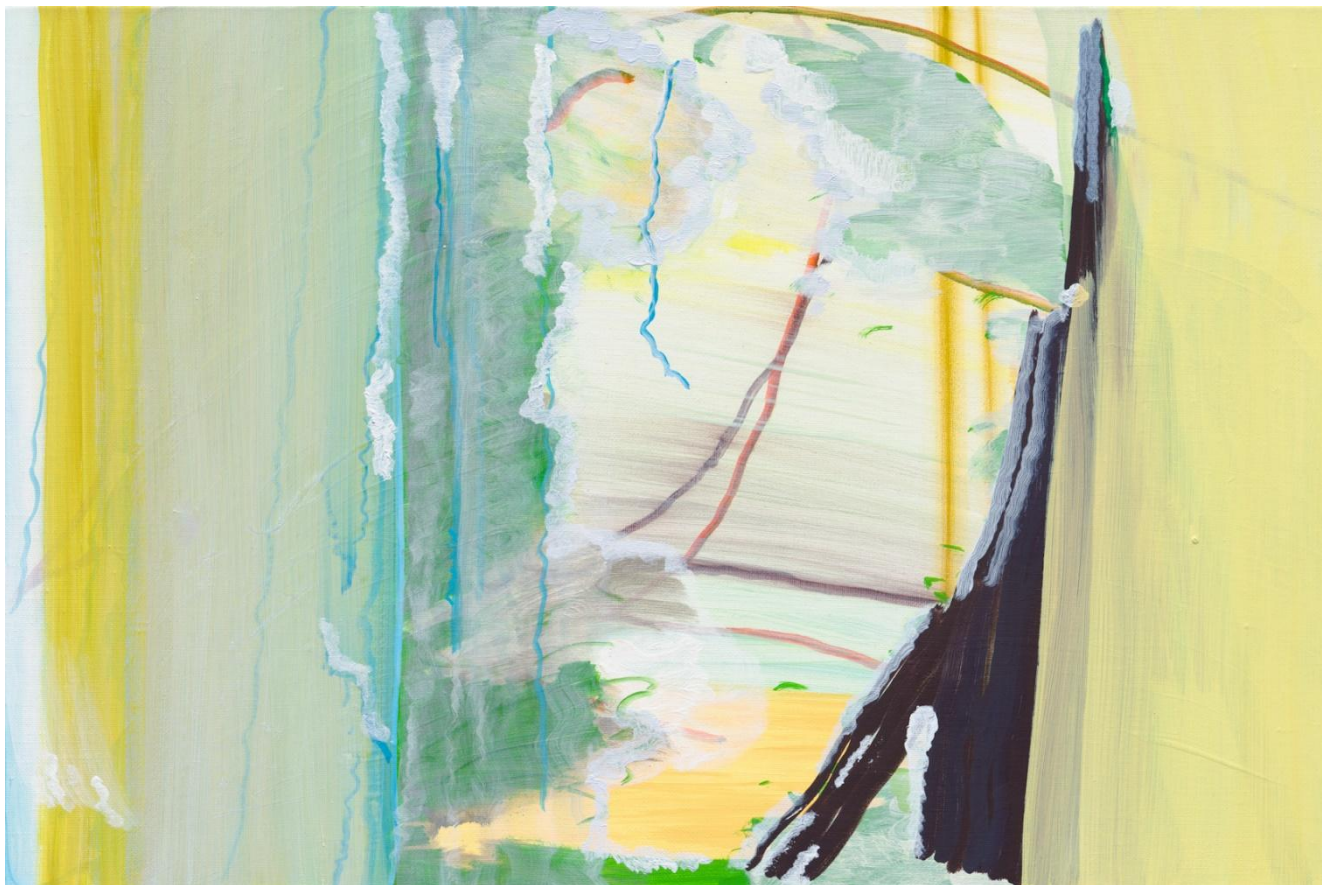
oil on linen

17 x 17cm

Winter Gyeoul Kim

Eraser Missing, 2023-2024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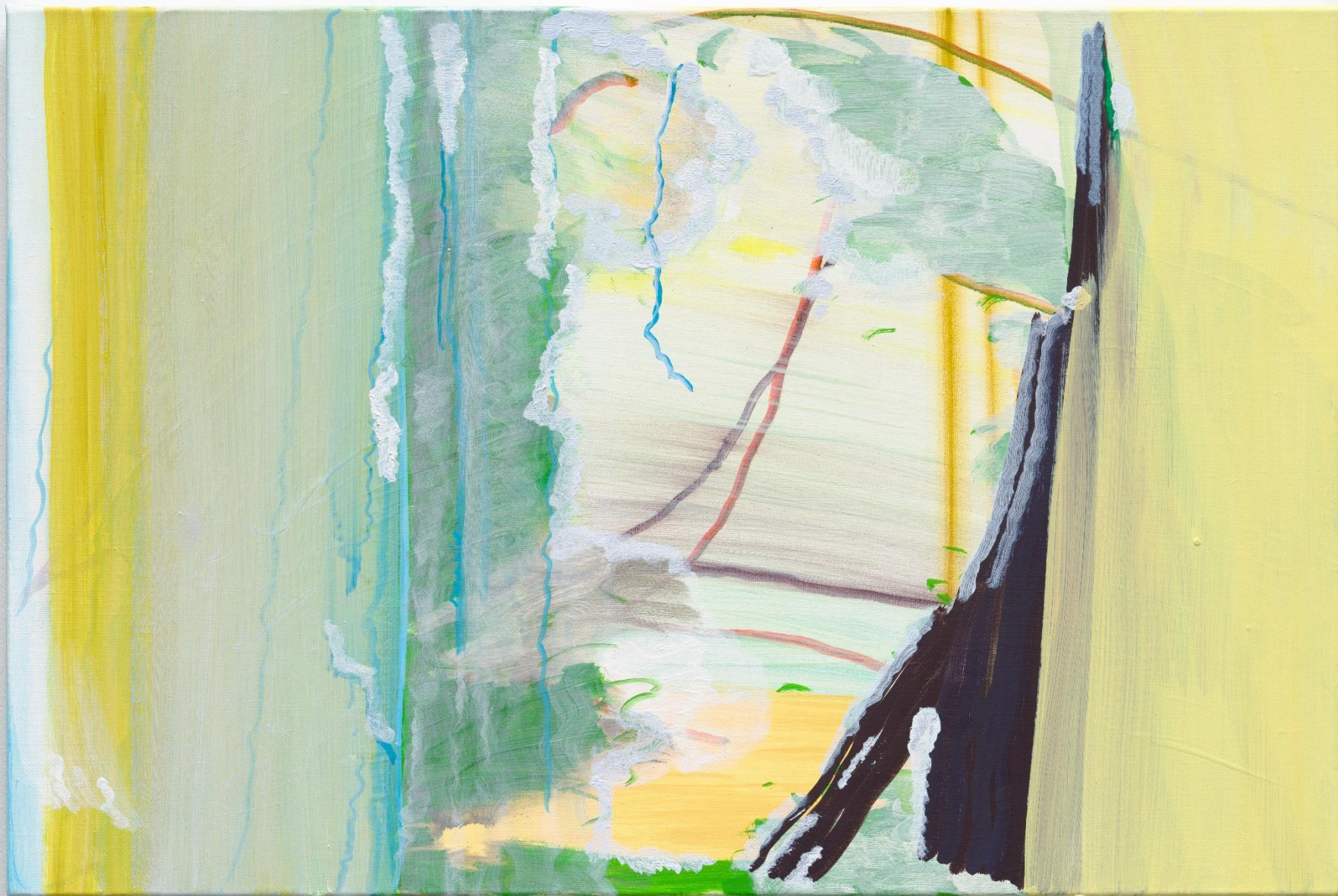
Winter Gyeoul Kim

Sleepy Tongu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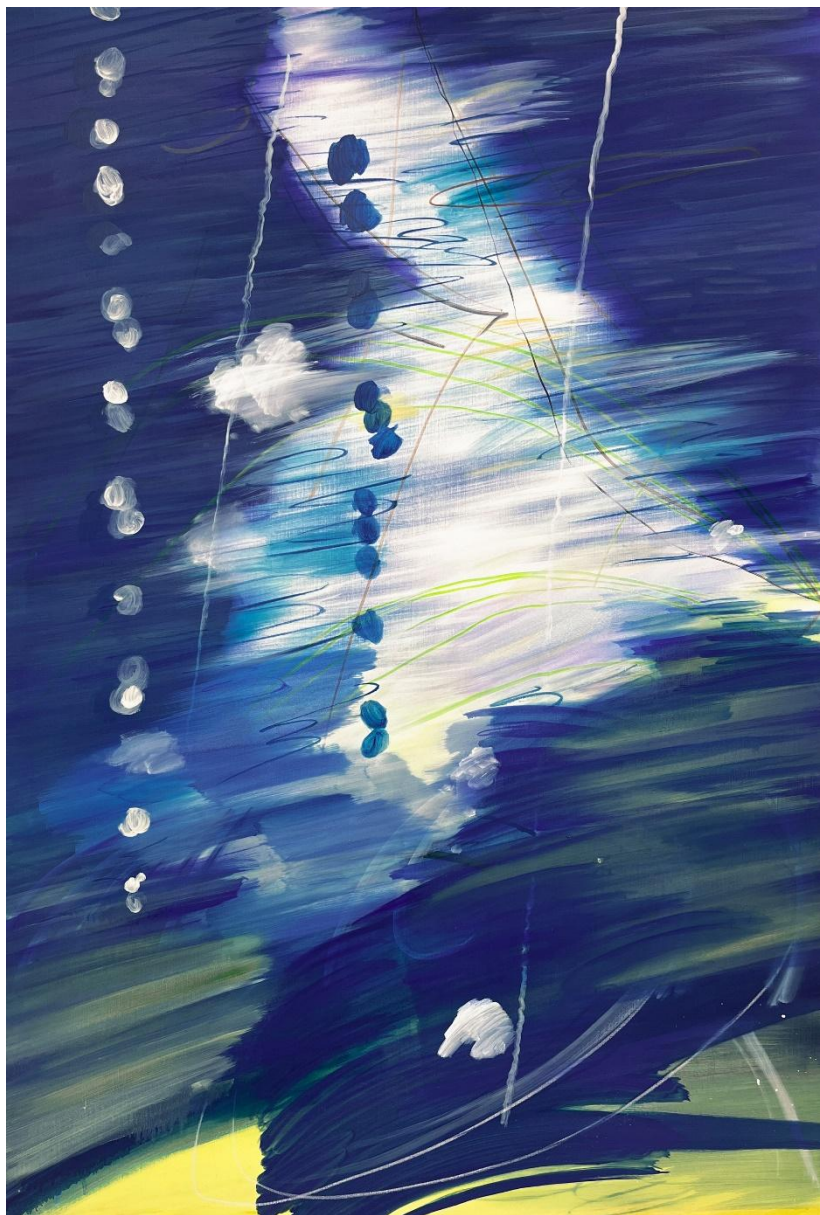
oil on linen

40 x 60cm



Winter Gyeoul Kim

Sleepy Tongue, 2022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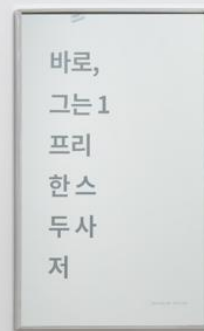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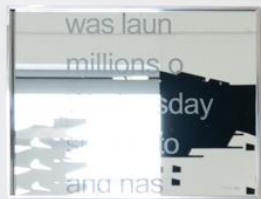


Run!

2022 - 2023

oil on linen

190 x 130 cm





aPageMissing

2023

oil and spray paint on linen, 160 x 130 cm

SPACE SO





Farewell

2023

pastel, pencil on paper, 29.7 x 21 cm



I love your curly hair

2023

oil, spray paint, and pencil on linen, 100 x 74 cm



P for Ponytail

2023

oil on cotton, 100 x 74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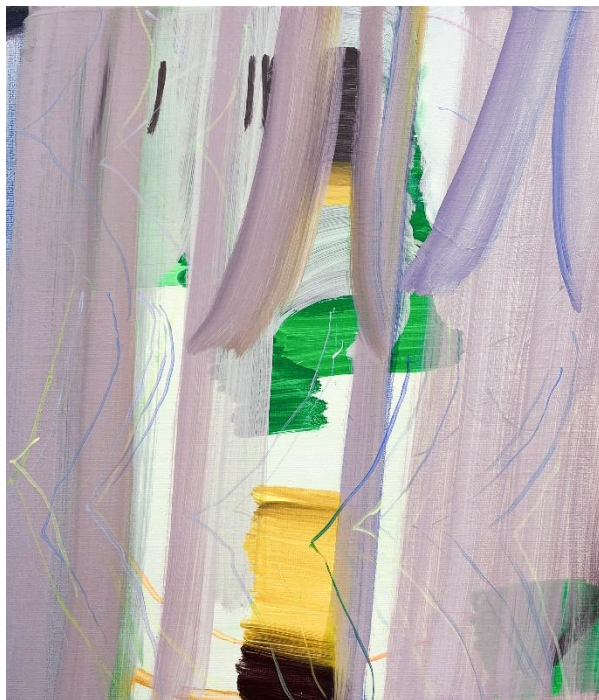


Standing in the sun, waiting for the shadow to arrive

2023

oil, colored pencil, and oil pastel on linen, 50 x 8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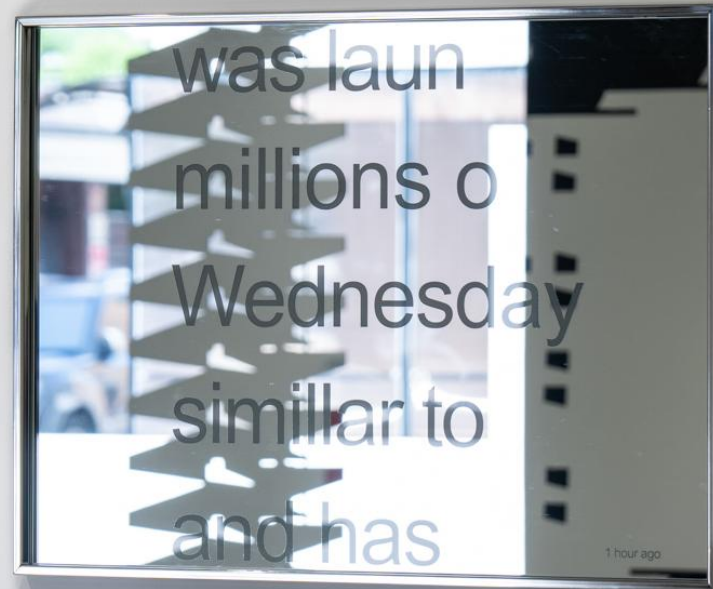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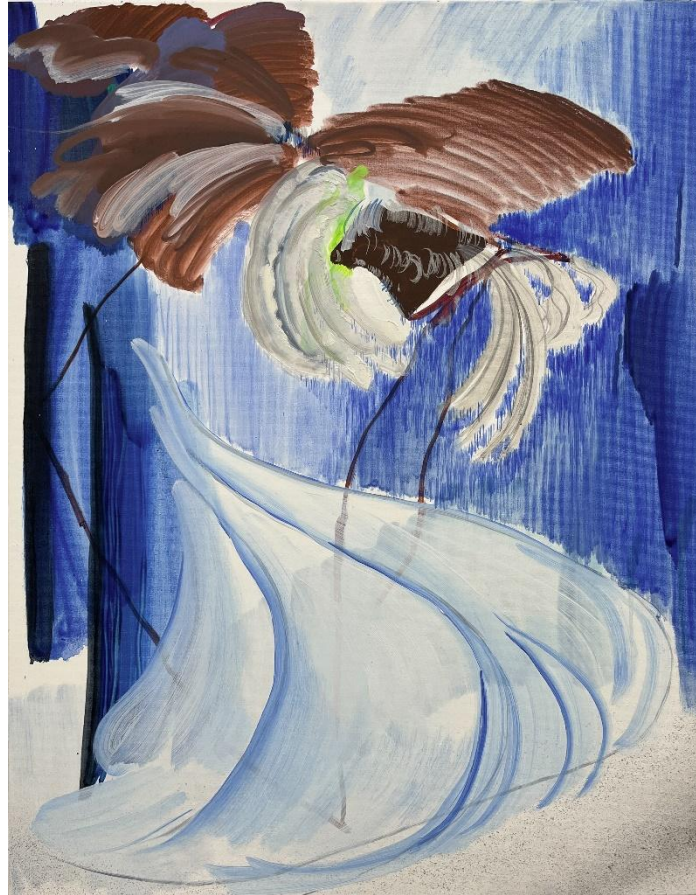


He wants you on the call

2023

oil on linen, 35 x 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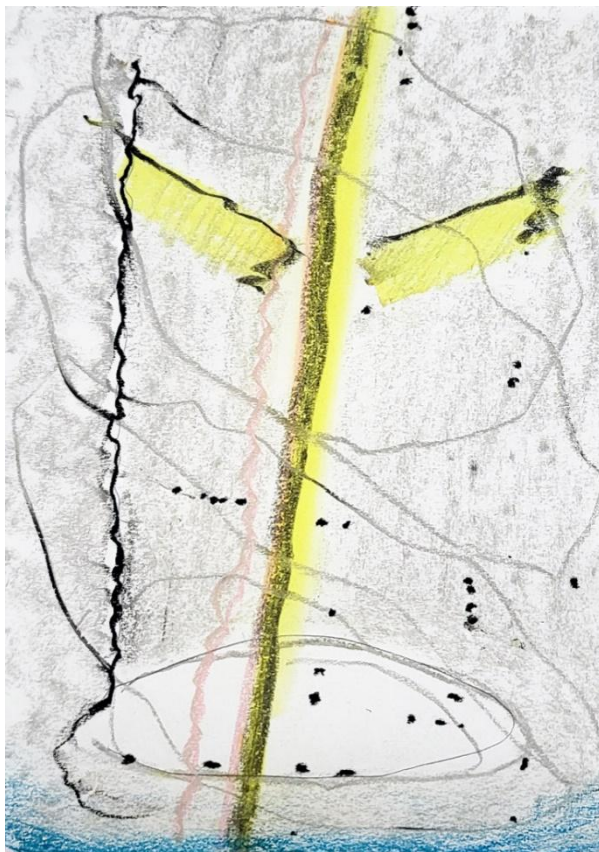


Swim in a pond

2023

oil and spray paint on cotton, 70 x 5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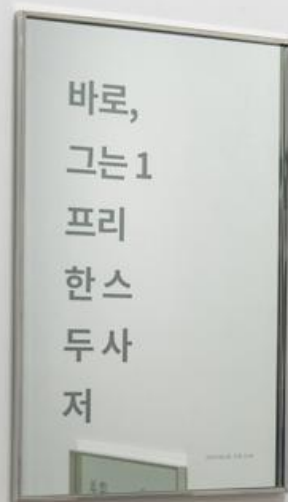




Prestine

2023

pastel on paper, 29.7 x 21 cm





Oh, I forgot my umbrella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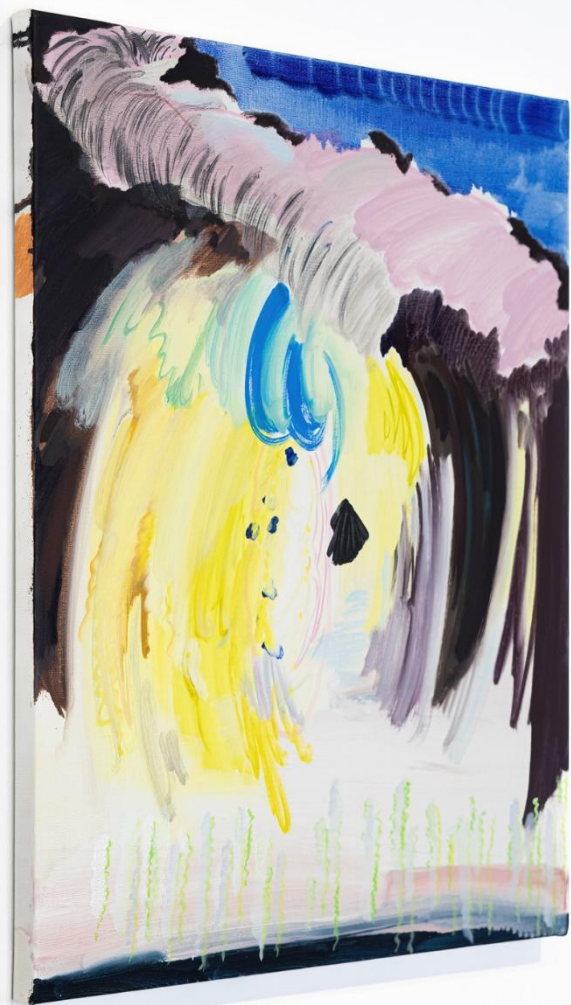
oil and spray paint on linen, 60 x 90 cm



Speaking of 'O'

2023

oil on linen, 60 x 50 cm



SPACE SO



No additional text

2023

oil on linen, 31 x 17 cm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마주하고 싶을 때가 많다. 그 세계가 손에 잡히고 뚜렷한 것들에 많이 치우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매 순간 주어지는 감각의 정보는 너무나 많고, 그것은 뭉뚱그려진 채로 내게 던져지는 느낌이다. 이를 빠르게 스쳐 지나치기 보다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다. 이 촘촘한 세계를 추적해 보고, 음유해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뭐라 딱히 부를 수 없는, 힌트로만 존재해 보이는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세계가 교차하며 좀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을 추적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상상해 본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코로 맡고, 귀로 듣기에서 더 나아가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감각을 더 예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를테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에 집중하면 그 하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듯, 마주앉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른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눈 부심을 의식하듯. 책 속 글자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다가도 페이지 위로 뒹뒹거리는 벌의 그림자에 정신을 빼앗겨 눈앞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 처럼 미세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움직임을 따라가 보려 한다.

작품 사진의 색을 수정하면서 한 사진작가와 나눴던 대화가 마음속을 맴돈다. 그 작가는 '사진에서 새로 페인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쉬워요.'라며 그림을 실제로 보지 않으면서 모니터 속 사진 수정을 어려워하던 나를 다독여 주었다. 이는 물감으로 그린 페인팅과 픽셀로 만들어진 그림이 아주 똑같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자를 옮기는 사람>(위크룸 프레스, 2021)의 작가 다와다 요코와 옮긴이 유라주의 말을 빌리면 번역은 (원본이 다른 언어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변신하는 움직임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리기의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를 때로는 문자 언어로 전달하기도 하며 변신하는 움직임으로 저자와 역자의 역할 그 사이를 또한 오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SPACE 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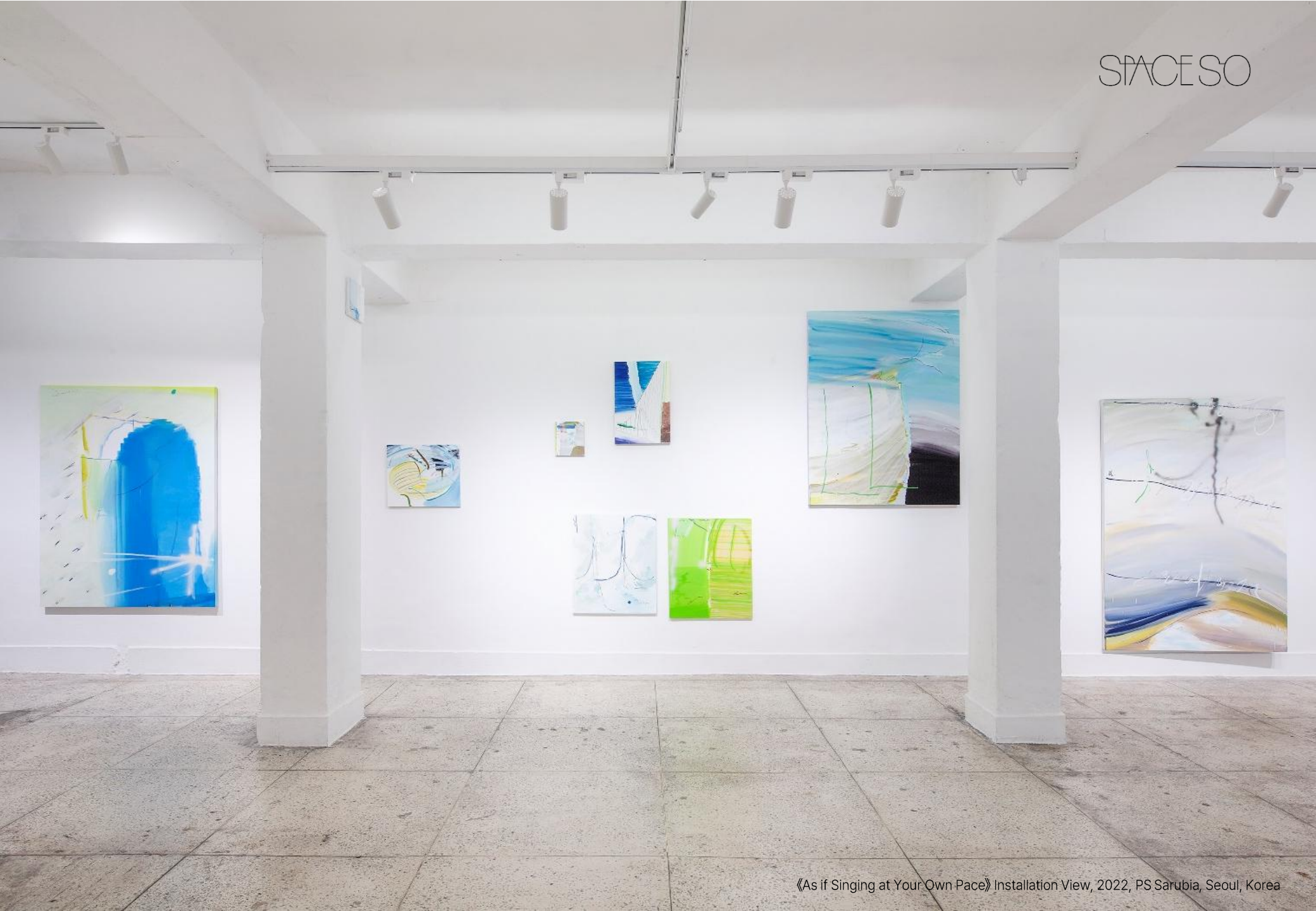
Outside of quotation mark

2022, oil on linen, 53 x 45.3cm



Ghost apple, 2020, oil on canvas, 117 x 80cm





김겨울 작가의 그림은 일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모양, 선, 색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 언어로 조합해 캔버스 위에 하나씩 차곡차곡 올린다. 이렇게 기존의 맥락에서 떼어진 조형 요소는 감각으로 전환되어 시적 운율과 정서를 만든다. 또한, 화면 위에 그려진 하나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와 반응하며 확장되고, 여러 캔버스를 동시에 오가며 그리는 방식은 작품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한다. 이 지점에서 작가의 상상 속 그림은 실제 그려내는 붓질의 속도와 어긋나게 되고, 작가가 생각한 이미지와 화면 위에 올라간 요소 간의 간극이 생긴다. 그의 그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흘러가는 변화를 담으며 어떤 형상에 도달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이어가고, 작가는 고정되지 않는 의미가 발생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특히 그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각이 다른 모습으로 옮겨갈 때, 온전하게 변환될 수 없어 생기는 공백에 관심을 둔다. 이는 우연히 알게 된 휘파람 언어 실보 고메로(Silbo Gomero)와 그림을 바라보는 방식 사이의 유사한 구조를 발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을 함께 연결해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곤 한다. 반면, 휘파람 언어는 소리의 높낮이 차이만을 이용해 소통하므로,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빈틈을 남기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의미의 틈새가 마치 작품을 보는 이에게 생기는 불명확함과 유사하다고 느낀다. 이렇듯 그의 작업은 비언어와 언어의 고리 안에서 순환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보는 이가 채워가야 할 몫으로 돌아간다.

김 재 연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개인전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 서문 중



Make no apologies

2021-2022, Oil on cotton, 180 x 200cm



A brief introduction, 2022, Oil, spray paint and oil pastel on linen, 160 x 130cm



Full moon calendar

2022, oil on linen, 45.5x53cm



So I wrote a letter, 2022, Oil and spray paint on linen, 180x130cm

김겨울의 그림은 사소한 요소에서 출발한다. 선과 색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히 듣게 된 단어나 한입 가득 베어 물었던 크루와상의 바삭한 부드러움 같이 현실의 끄트머리 감각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끄트머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김겨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를 이루는 모양, 즉 표피가 아닌 그 속의 것 (흔히 본질 혹은 개인적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가깝기 때문이다. 알고 있던 대상 속 다른 면을 감각하고 그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것, 그리하여 대상을 향하는 언어를 완전히 바꾸어 (현실로 환원되지 않는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김겨울의 그림이라 할 수 있겠다. 애초에 도달해야 할 (혹은 재현해야 할) 목표점을 두고 시작한 그림이 아니기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매번 다른 선과 색을 더해가며 화면 안에서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그가 말하는 균형이란 불화의 산물들이 모여 어떤 어울림을 주는 지점, 마치 ‘이상한 자연스러움’이라는 단어가 허락될 법한 순간이다.

과거의 경험 혹은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언런(unlearn)의 상태를 지향하는 작가는 “내가 쓰는 선과 색에 덜 익숙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언제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는 생각을 하는 그에게 ‘모르는 상태에 머물고 싶다’는 것은 언뜻 불가능을 희망하는 언사로 들리기 십상이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인식하는 체계를 흔들고 물음표를 띄우는 일, 낯선 상황으로 화면을 이끌고 잠시 매듭짓는 일, 그리하여 관념을 무화시켜 새로운 시선을 도출해 내는 김겨울의 작업적 화두 안에선 가능한 일이 되겠다. 주지하다시피 그의 그림은 선이라는 조형의 기본에서 그리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화면은 꼭 찢이지 않아 빈틈이 있고,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점과 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 관습과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은 단 하나도 없다. 어쩌면 김겨울은 형태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그저 고심하여 다음 선을 그어 나갈 뿐이다.

“나는 천국을 상상한다.”

김겨울의 그림은 낯설을 연료 삼고 새로움을 지향점 삼아 작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느 세계로 나아간다. 결코 세계로 환원하지 않는 언어로서의 감각을 담지한 채 느슨하게 도착한 그의 그림을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 따라가 보자. 나는 아직도 그의 그림들이 낯설지만 이제는 그 낯설을 당혹 아닌 당연으로 받아들인다. 리듬으로만 들리던 소리가 멜로디가 되어 마침내 따라 부르게 되는 순간, 선과 색으로만 보이던 김겨울의 그림이 담아내는 감각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 김겨울은 또다시 깊고 낯선 곳으로 도망쳐 선을 숨겨주고 발각되길 자처하며 이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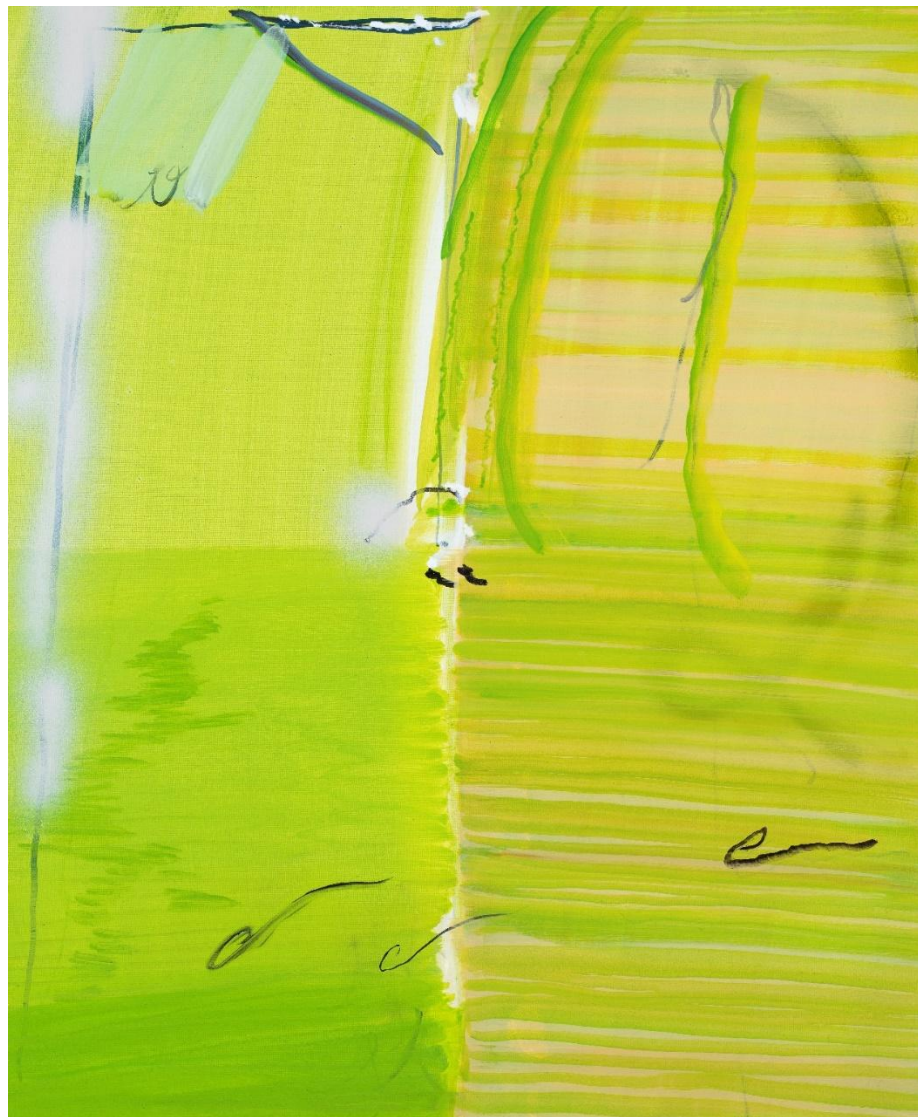
신 지 연 (큐레이터)

<온전한 엉성함을 향하여> 중



Loving my broken language

2021-2022, oil on cotton, 72.5 x 60.3cm



Hi, Hello, Dear...

2022, Oil and spray paint on linen, 72.4 x 60.6cm

SPACE SO



《As if Singing at Your Own Pace》Installation View, 2022, PS Sarubia, Seoul, Korea

몇 해 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스페인의 고메라 섬에서 사용하는 실보 고메로(Silbo Gomero)라는 휘파람 언어를 알게 된 후 가끔씩 떠올려 보았다. 휘파람이 언어가 되어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세계를 확장하고 있었다. 휘파람 언어로 완벽히 전달할 수 없어서 생겨나는 빈칸은 듣는 이가 채워나가며 소통한다고 하는데, 나의 그림 앞에 서서 생각이 더해지는 시간을 들여 그림에 자리한 빈칸을 채워보는 한 사람을 떠올리기도 했다.

섬의 험악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진 언어는 스페인어를 휘파람 소리로 모방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면서 언어의 물성이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게 된다. 내 생각과 느낌을 그리기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문자언어로 전달하며 몸을 바꾸는 사이 나 또한 저자와 역자의 역할 그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중 하나가 그리기라면, 이 그리기의 언어를 공고히 만들기에 관심 있기보다는 언어에 이곳저곳 구멍을 파놓고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일에 좀 더 몰두하고 있다. 실은, 실보 고메로의 기원처럼 언제 내가 그리기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외국어를 습득할 때처럼 계속해서 쓰고 상상하고 발음하며 그리는 언어가 내게 어색하지 않게 존재하게 됐지만 이 언어를 구사하려 할 때마다 오는 어색함은 여전하고 그게 반갑다. 재료를 다르게 쓰던 페인팅과 드로잉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종이에서 떠돌던 선들이 페인팅 안에 잔뜩 들어와서 오일 페인트의 몸을 하고 이동하고 있다. 저 멀리 걸어갔다가 돌아오면 방향이 바뀌어버린 눈썹만이 있는 것처럼 그림도 마주할 때마다 어딘가 조금씩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Days of Redo and Undo

2022, oil on linen, 80 x 70cm



I have something to say

2021-2022, Oil and pencil on cotton, 53 x 45.5cm



김겨울 Winter Gyeoul Kim

b. 1988

Educations

2019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2012 School of Visual Arts 순수미술과 졸업, 뉴욕, 미국

Solo Exhibition

2024 S, M, L, XL, 스페이스 소, 서울
2022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18 Hertz, 위켄드,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4 페리지 윈터쇼 2024, 페리지갤러리, 서울
2024 ISCP 2024 Spring Open Studio, ISCP, 뉴욕, 미국
2024 My Word In Your World,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2023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23 살아있는 현재: Living Presence, 금천예술공장, 서울
2023 사라질 수 없는 선이 남는다, 스페이스 소, 서울
2023 콘크리트 리듬, 파이프갤러리, 서울
2022 5 FIVE Vol.2, 스페이스 소, 서울
2022 BGA INDEX : OPEN STORAGE, BGA INDEX, 서울
2022 설경,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서울
2022 The Art Plaza: LINK by IBK, IBK 기업은행 본사 선문가든 옆 지하 아케이드, 서울
2022 물질 구름, 아트스페이스 3, 서울
2022 추상과 풍경,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2021 페리지 윈터쇼 2021, 페리지 갤러리, 서울
2021 Summertime, 카다로그, 서울
2021 숨바꼭질: 눈길, 귀엣말, 스페이스 소, 서울
2020 나, 그리고 그 밖의 것들, 하이트컬렉션, 서울
2020 BGA offline showcase: PHYSICAL, 팩토리2, 서울
2019 00min00sec vol.2, 신촌극장, 서울
2019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린다, 스페이스 소, 서울
2019 이것을 보는 사람도 그것을 생각한다, 아트스페이스 3, 서울
2019 HAND-BRIDGE: 00min00sec, 코너스톤, 동두천, 경기도
2019 배꼽도감, 별관, 서울
2018 K의 평면, 복도갤러리, 서울
2018 Drawing의 무게, 갤러리 9P, 서울
2017 A matter of Awareness, 2/W, 서울
2013 Celebrating the Non-Profit Idea with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 Alfa Gallery, 뉴저지, 미국

Grants and Residencies

2024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 ISCP, 뉴욕, 미국
2023 금천예술공장 14기, 서울

김겨울 Winter Gyeoul Kim

b. 1988

Educations

2019 M.F.A., Fine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2012 B.F.A., Fine Arts,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2011 Fine Arts Exchange Program, Willem de Kooning Academy, Rotterdam

Solo Exhibition

2024 *S, M, L, XL*, SPACE SO, Seoul, Korea
 2022 *As if Singing at Your Own Pace*, PS Sarubia, Seoul, Korea
 2018 *Hertz*, Weekend,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4 *My Word In Your World*, New Spring Project, Seoul, Korea
 2023 *Memory Beneath the Ego*, Fantasy Above The Ego,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3 *Living Presence*,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2023 *Only Indelible Good Left*, SPACE SO, Seoul, Korea
 2023 *Concrete Rhythm*, Pipe Gallery, Seoul, Korea
 2022 *5 FIVE Vol.2*, Space SO, Seoul, Korea
 2022 *BGA INDEX: OPEN STORAGE*, BGA INDEX, Seoul, Korea
 2022 *Snow scenery*, Lotte Gallery Seoul, Seoul
 2022 *The Art Plaza: LINK by IBK*, IBK Sunken Garden Underground Arcade, Seoul, Korea
 2022 *Cloud Matter*, Art Space 3, Seoul, Korea
 2022 *Abstract and Landscape*, KYOBO ART SPACE, Seoul, Korea

2021 *Perigee Winter Show 2021*,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21 *Summertime*, Space Cadalog, Seoul, Korea
 2021 *Hide and Seek: a Peek, a Whisper*, SPACE SO, Seoul, Korea
 2020 *I, Etcetera*, HITE Collection, Seoul, Korea
 2020 *BGA offline showcase: PHYSICAL*, Factory2, Seoul, Korea
 2019 *00min00sec vol.2*, Theatre Sinchon, Seoul, Korea
 2019 *Night Sense: sound, scent and memories*, SPACE SO, Seoul, Korea
 2019 *One seeing this also thinks that*, ArtSpace 3, Seoul, Korea
 2019 *HAND-BRIDGE:00min00sec*, Corner stool, Dongducheon, Korea
 2019 *The belly button is gone*, Outhouse, Seoul, Korea
 2018 *Thin/K*, Gallery Corridor, Seoul, Korea
 2018 *The weight of drawing*, Gallery 9P, Seoul, Korea
 2017 *A matter of Awareness*, 2/W, Seoul, Korea
 2013 *Celebrating the Non-Profit Idea with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 Alfa Gallery, New Jersey, U.S.A.

Grants and Residencies

2024 *DOOSAN Gallery International Residency - ISCP*, New York, USA
 2023 *The 14th Resident Artists programme at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